



내가 그대들의 방패라네!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20호

2020. 6. 25.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

한양대학교 코로나 유공자, 직원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보다 빠르게 2020년 4월 13일(월)부터 대면 수업을 개시했다. 대면 수업 시작과 함께 직원은 전면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캠퍼스 내 전염 방지를 위한 특별 근무에 참여했다. 다른 대학에서 시행하지 않은 한양대학교 직원의 전면적 무보수 특별 근무는 학교를 먼저 생각하는 직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은 시시각각 바뀌는 비상 상황에 빠르게 행정적으로 대응하며 저녁 없는 삶을 보냈다.

덕분에 우리 대학은 2020-1학기 수업의 질 확보와 전염병 확산 방지란 두 가지 성과를 모두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헌신에 대한 보상은커녕 대면수업, 성적평가, 등록금 환불 등에 관한 온갖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고충을 겪어야 했다. 한편, 온라인 수업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 최소한의 비상 근무조차 거부하며 공동체 의식을 망각한 일부 보직자와 교원에게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위기 시 대학 캠퍼스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직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제 대학 당국이 직원에게 화답할 차례다. 말로만 끝나는 감사 인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직원 사회의 바람을 담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표시하라. 노동조합은 코로나19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도 포기한 채 직원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처우와 복지 개선 사항들만 단체협약(안)에 담았다. 그간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다.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순국선열의 공로가 기억되지 못한다면 다음 전쟁 시 누가 나라를 지키겠는가? 대학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전쟁 같은 한 학기를 마친 직원의 공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총장과 대학 경영진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